

# 정보통신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사업의 추진방향

## 종합적지원기반마련, 자율적 공동협력 여건 조성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에 의한 고도 성장정책으로 짧은 기간동안 산업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축적이나 핵심기술의 자체개발은 도외시되어 기초소재, 부품 및 주요기기의 수입의 존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국내 생산제품의 개발은 주요국의 부품공급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기현상을 낳게 되었다.

정 태 진 ETRI 정보통신중소기업기술진흥본부 선임연구원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에 의한 고도 성장정책으로 짧은 기간동안 산업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축적이나 핵심기술의 자체개발은 도외시되어 기초소재, 부품 및 주요기기의 수입의 존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국내 생산제품의 개발은 주요국의 부품공급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기현상을 낳게되었다.

또한, 대기업 중심 시스템산업에 치중하여 창의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무한한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에는 다소 부진하였고, 대기업 고도성장정책 당시의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 제반여건이 취약하여

단순 조립생산에 의존하는 등 산업의 기반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80년대 부터 이러한 국내 산업발전의 취약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산화율을 높이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소기업 육성시책, 첨단기술개발사업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은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술 등이 복합된 첨단기술개발과 고도의 시스템기술이 요구되며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었다.

종래의 기계식 교환설비에 필요한 부품 및 주변장치 생산에 주력해온 정보통신 중소기업들은 '80년대 들어 교환기가 전자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경험부족 및 기술개발을 위한 충분한 준비단계를 갖추지 못하여 전자식 교환기 개발사업 등 정보통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 당시 주요부품은 수입에 의존하여 국산화 개발이 시급히 대두되었으나, 부품이 다품종소량인데다가 고도의 신뢰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며 기술의 발전주기가 매우 빨라서 통신기업들은 수익성을 심각히 우려하여 기술개발을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통신용 부품중심 중소기업 육성 필요**

이와같은 정보통신 중소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신용 부품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관련법령에 의거 상공부(현 통상산업부)가 주관하고 있었으나 상공부는 국내 전체산업을 포괄하여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서는 이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따라,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에서는 체신금융사업, 한국전자통신공사의 구매력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전자 교환기 및 주요통신기기의 국산화개발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84년도에 시범적으로 15개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자금 융자를 실시하였으며, '8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육성품목을 발굴하고 동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중에서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기술 및 판로알선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89년에는 그간의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정보통신기업의 기술개발지원과 품질향상 지원을 골자로 한 "육성품목 발굴 및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이에따른 지원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발굴지원사업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각각의 역할분담을 하여 정보통신부는 육성시책수립 및 자금지원, 한국통신은 품질인증 지도 및 판로개척 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소 보유 인력, 시설의 활용을 통한 애로기술지도, 연구소 개발 및 보유기술의 기술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후 3년간 집중 지원하고('95년 이전은 선정후 5년간) 지원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우량기업으로 지정하여 2년간 연장지원을 하게된다.

'85년부터 '95년까지 통신부품 등 71개의 육성품목을 발굴하고, 총 159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후 5년이 경과하여 지원종료(졸업)된 기업은 69개 기업이고, '96년 현재 9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96년 6월에는 30여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품목 중점지원

정보통신 분야의 중점육성품목은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크고, 기술개발의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정보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과 국산화율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대기업 제품과 연계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한 기술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품목을

당해년도 육성품목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의 선정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지분이 51%이상이 아닌 기업중에서 육성품목을 전문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보유기술수준, 경영상태, 개발의욕 등을 종합평가하여 3개 기관의 집중지원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타부처 사업과 달리 양적인 발굴지원이 아닌 내실있는 소수 정예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균형있는 성장발전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추진결과 10년 동안 융자추천 및 정보화촉진자금 등을 통하여 766억원의 자금지원, 구매 및 판로알선을 통한 3,047억원의 지원과 기술정보제공, 기술교육, 애로기술지도 등 33,617건의 기술지도를 하였고, 이러한 지원성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94년에는 100개 지원기업의 매출액이 612,528백만원에 이르렀고, 65개기업의 순이익은 17,668백만원이 발생하였다. 기술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이 종료된 69개 기업중 54개 기업은 중소기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으며, 자생력을 갖추어 현재 국내 정보통신분야 전문기술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구가해 가고 있다.

또한, 7개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하여 증권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대기업에 비해서도 월등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정보통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종합적인 지원성과를 요약해보면,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후 5년간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인 기술정보 및 현장 애로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을 유도하고, 신제품개발, 품질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수행 여건조성 및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연구소 보유기술전수 및 공동연구개발을 통하여 핵심부품, 기기의 상품화를 촉진시켜 선정 당시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지원종료후 증권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과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공동참여 통한 기술개발능력 배양에 역점

앞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10여년간 정보통신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그간 문제점을 심층분석하고,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지금까지의 시혜적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공동참여를 통한 기술개발능력배양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96년초 정보통신중소기업기술진흥본부를 신

설하여 본격적인 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정보통신분야가 국정의 제1지표로 됨에 따라 이에 호응하는 기술진흥 목표를 정보통신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 기술진흥 Infra 구축, 기업의 Innovation 촉진 등으로 설정하고,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기술개발의 확대, 기술지원 Infra 구축, 기술 Innovation 활성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중 창의와 아이디어를 가진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관련 신세대 창업기업군이 근년들어 활발한 도약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5~10명 미만의 고부가가치 창출 소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금융, 세제, 시설 등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잠시 주요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고유의 기업 문화나 배경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반여건이 취약한 것은 공통적이다.

미국은 약 1,000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술력으로 대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중소기업이 국민총생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특별히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해 주는 것은 없어도 대기업 스스로가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역으로 나뉘어 중소기업이 전세계를 상대로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총생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상호공존을 통해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 기술을 전파하고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의 62% 정도가 대기업의 계열사로 되어 있으며, 오늘날 일본의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독특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만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측면보다는 공동구매, 기술개발, 시장개척, 해외전문가 초빙 활용 등 간접적인 측면으로 강력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만의 산업특성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력과 유연성이 풍부하여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빠르고 경제의 탄력성이 매우 강하다.

## 특색있고 내실있는 방향으로 추진 시급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미국, 일본, 대만의 각종 제도를 혼합한 형태로 어느나라 보다도 제도적인 장치가 많으며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각종 제도 및 시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타국에 비해 특색있고 내실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한 면이 있다. 즉, 중소기업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금융 및 조세지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강화에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중소기업청을 발족시켜 기술개발만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정의 지표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활기차게 추진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고 기대감도 대단히 크다.

국내의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및 현안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보면, 기술개발 능력의 부족, 판로개척의 어려움, 자금조달의 어려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용의 미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이유

로는 핵심부품 및 기기의 자체 기술개발 부진,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고 핵심인력의 이직이 많으며, 기술축적 부재와 신기술 및 신제품 정보의 획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판로개척에 있어서는 기술기획 능력 및 해외시장 동향파악 부족, 신제품 개발후 제품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술의 미확보로 경쟁력 약화, 그리고 제품홍보 능력의 미비로 어려움이 있으며, 자금조달 부문에 있어서는 자금담보 능력 부족,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확보의 한계성을 들 수 있는데 이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의 각종 자금 및 자금조성지원으로 타산업분야는 제외하고 라도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용미비 사유로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및 지원제도의 인지도 부족, 지원제도 활용시 전문인력 부재로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 각종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지원 기관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주로 시혜적 성격의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고, 중소기업 또한 항상 약자로 생각하여 그렇게 인식하여 왔다.

이제는 WTO체제가 정식으로 가동되고 개방화가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인식의 전환과 기술혁신을 통한 자생력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인력확보,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술혁신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의 인프라(Infra)를 구축하여 중소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동협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역점을 두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

## 협회간행물판매

협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을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판 또는 시내 유명서점에 가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총 판 : 도서출판 진한도서(전화 : 319-3535)
- 간행물 목록 - '95정보통신사업실태조사 「부가통신서비스편」(10,000원/ 권)
  - 외국의 정보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및 현황 자료집( I, II)(10,000원/ 권)
  - 최신판 정보통신용어해설집(6,000원/ 권)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업무편람(25,000원/ 권)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시험기준(25,000원/ 권)
  - 기타 협회 발행 간행물